

사 2 맛나는 세상

2026년 3+4월 vol.159

AI의

기억

VS

사람의

추억

GOOD-NEWS.OR.KR

삽화: 연두색과 분홍색이 대비된 배경 위에 'AI의 기억 VS 사람의 추억'이라는 글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Contents



04

—— 프롤로그 ——

기억을 넘어
온기로 남는 추억

06

—— 테마 에세이 ——

AI 시대의 생존법,
더 인간답게 추억하기

10

—— 계속 써 내려간 이야기 ——

제19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자 김용춘 씨

14

—— 청년 봉사 인사이드 ——

함께 성장하는 청년 봉사단
드림잇(Dream it)

18

—— 변화의 온도 ——

청년 플로깅 크루
'쓰레커(Srekker)'

22

—— 일상 속 살맛나는 세상 ——

살
맛나는 세상 2026년 3+4월 vol.159

등록일자 1999년 4월 19일 등록 신고번호 서초마00080(격월간 비매품) 발행일 2026년 3월 5일 발행인 겸 편집인 박문희
발행처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18층 '살맛나는 세상' 편집실 기획 오수민 구독신청 및 문의 오운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ood-news.or.kr) 편집 및 디자인 위닷(wedot.co.kr) 인쇄 보명씨앤아이(02-2274-4545) 사진 김태화



23

—— 살친소 ——



24

—— 나의 삶, 나의 보람 ——

2만 3천여 시간
교육봉사 이어온 김운주 씨



28

—— 배움과 나눔 사이 ——

경주에서 문화유산
해설 봉사하는 이용호 씨

32

—— 봉사로 피워낸 희망 ——

발달장애 아들 덕분에
봉사의 길에 들어선
지보현 씨

36

—— 다시 빛나는 인생 ——

정년퇴직 후
봉사의 삶 살아가는
김은배 씨

40

—— 다정한 행동 도감 ——

위기의 순간을 구한 선한
사람들

42

—— 삶을 비추는 문화 ——

추억, 시간이 남긴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전시

46

—— 코오롱 사회공헌 Insight ——

50

—— 빨간 우체통 ——

사진: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자연 풍경 사진 여러 장이 보이고,
한 사람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화면에 표시된 꽃 사진을
확인하고 있다.

기술의 시대 속
사람의
온도를 지키다

기억을

넘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터를 눌러 저장한 수만 장의 데이터보다
그날의 공기와 감동 한 자락이 마음 깊은 곳에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정리된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이 때때로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닿습니다.
잊었던 장면이 문득 선명히 떠오르고,
그때의 마음이 지금의 나를 잠시 멈춰 세우는 순간처럼요.

AI는 데이터를 기억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추억합니다.
AI는 모든 순간을 저장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잊으며 살아갑니다.

기술의 시대, 사람의 온도를 지키는 두 번째 가치는 추억입니다.
기억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남아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사진: 호수 앞 초원에서 한 여성이 어린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마주 서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온기로 남는

추억

요즘 우리는 무엇이든 저장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진은 남고, 기록은 쌓이고, 말은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또렷하게 남는 것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득 떠오르는 온기와 망설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 AI가 기억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추억'에 대해 다시 묻게 됩니다.

AI 시대의 생존법, 더 인간답게 추억하기

삽화: 수평선이 보이는 풍경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의 한쪽이 작은 사각형 픽셀 조각들로 퍼져 나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호훈 디지털융복합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마케팅 전략 및 디지털전환(DX) 컨설팅사 '퍼스펙티브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경영학 겸임교수, 채용 전문 면접관 등의 경력에서 얻은 폭넓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경영, 문화, 심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사진: 남성이 아이를 안고 서 있으며, 아이는 여러 개의 색색 풍선을 들고 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두 개의 세계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기술적 의미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과 추천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정확히 호출하며, 맥락에 맞게 재조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컴퓨터 과학에서는 매우 정교한 기억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능입니다.

AI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인출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억 방식은 동일한 입력에 동일한 출력을 요구하며, 오차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수십만 번 데이터를 꺼내도 오차가 거의 없는 완벽한 기억입니다. 이는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이지만, 동시에 생명력과 감정이 사라진 냉정한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기억은 처음부터 불완전함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기억을 저장기 아니라 재구성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 가치관, 상황을 바탕으로 과거를 다시 해석한다는 거죠. ‘기억(記憶)’이 ‘생각을 기록한다’는 뜻이라면, ‘추억(追憶)’은 ‘지나간 생각을 쫓아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AI는 기억을 정확히 관리할 수는 있어도, 기억이 사람이 이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의 흔적

AI 연구 현장에서는 기억을 *벡터 임베딩(Vector Embedding)된 정보의 집합으로 다룹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억은 이식이 가능하며, 공유와 복제가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속 복제인간이 타인의 기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설정도 기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억에는 결정적으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감각질’입니다. 이는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한 주관적 경험으로, 동일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개인마다 전혀 다르게 형성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통해 유년 시절을 떠올린 장면은 이를 아

*벡터 임베딩: 단어나 이미지와 같은 비수학적 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머신 러닝(ML) 모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숫자의 배열로 표현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수치로 표현한 것

름답게 보여줍니다. 그 기억은 문장이나 정보가 아니라, 향기와 온기, 신체 감각이 동시에 활성화된 경험이었습니

다. 기계는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다”라는 문장을 데이터로 처리할 뿐이지만, 인간은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손등에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 코끝을 스치는 비누 향기, 그리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신체적 반응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신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추억은 뇌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느낌과 감정, 시간이 함께 얹힌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억은 공유될 수는 있어도 이식될 수는 없습니다.

망각이 만드는 온기의 공간

AI 시스템에서 망각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데이터 손실은 성능 저하로 직결되며, 반드시 방지해야 할 문제죠. 그러나 인간의 인지 체계에서 망각은 오히

사진: 한 사람이 홍차에 적셨다 꺼낸 마들렌을 손으로 들고 있다.



기계는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다”라는 문장을 데이터로 처리할 뿐이지만, 인간은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손등에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 코끝을 스치는 비누 향기, 그리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신체적 반응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려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만약 모든 정보를 동일한 강도로 기억한다면, 인간은 감정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망각을 ‘정서적 필터링 과정’으로 설명하는데요. 시간은 기억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감정의 과잉을 완화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통 그 자체보다 의미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을 서사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앨버트 슈바이처가 “행복이란 건강과 나쁜 기억력”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각이 만든 빈 공간에 감정이 자리 잡으면, ‘추억’이라는 따뜻한 농축물이 됩니다. 사진이 단순한 기록에서 프레임(Framing)이라는 선택을 통해 현실을 다르게 담듯, 인간은 일부 기억을 선택적으로 망각하며 온기를 입히고 소중한 추억으로 만듭니다. AI는 10년 전의 비 내리던 날을 강수량과 기온이라는 수치로 완벽하게 보존하지만, 인간은 그 날의 축축했던 공기와, 함께 쓴 우산의 좁은 폭, 상대의 어깨가 젖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을 남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자체보다 감정이 깊게 남는 그런 결과 됩니다.



사진: 비가 내리는 숲길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우산을 함께 쓰고 서로를 감싸 안고 서 있다.

이 감정의 농축은 우리가 타인의 사연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힘이자, 관계를 따뜻하게 맺게 하는 연금술입니다. AI는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써 유능해지지만,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기에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추억을 나누며 함께 만드는 세상

AI 기술은 앞으로도 인간의 기억을 보조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인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과거의 대화를 재현하며, 삶의 흔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질문해

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저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서로의 마음에 남길 것인가’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추억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정신적 중심이며,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억은 단순히 개인의 것을 넘어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추억을 나눌 때,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남은 온기를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견뎠다”라는 믿음이 쌓일 때, 단순한 지인 관계는 단단한 공감 공동체로 격상되죠.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추억을 만들고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AI는 기억을 최적화하며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추억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이해합니다. 기록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의식적으로 추억을 만들고 건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기억을 보조하는 동안 인간은 마음으로 시간을 서성이며 의미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

사진: 침대 위에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사진 여러 장이 놓여 있다.



소리로 빛어온 길, 울림으로 이어온 나눔의 세월

제19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자 김용춘 씨



김용춘 씨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사진: 한국시각장애인복지
관 앞에서 김용춘 씨가 활짝
웃고 있다.

그는 오늘도 작은 글씨와 한자로 뿔뿔한 전문서적을 펼친다.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어내는 데는 꼬박 몇 달이 걸린다. 단어의 뜻을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는 직접 풀이를 달아가며 읽고 또 읽는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읽는 결이 맞아야 누군가에게 선명하게 닿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용춘(84) 씨가 정성껏 남긴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손기술이 되고, 생계가 되고, 내일이 된다. 오래도록 묵묵히 반복해 온 그의 하루하루는 이미 수많은 이들의 삶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었다.



사진: 봉사단체 '오지회'를 결성해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의 어르신들에게 수지침을 놔드렸다.



수지침 봉사로 시작된 첫 나눔

김용춘 씨의 봉사는 1994년 문화센터에서 수지침을 배우며 시작됐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초급 과정에서 멈췄지만, 그는 고급까지 배움을 이어갔다. 기술을 익히니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졌다. 동기들과 봉사단체 '오지회'를 꾸려 한 달에 한 번 노인요양원을 찾아 수지침 봉사를 시작했다. 그때 배움은 나눔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카의 부탁에서 얻은 깨달음

몇 해 뒤, 조카가 한방 서적 한 권을 가져왔다. 한자에 토를 달아달라는 부탁이었다. 그가 평소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한자를 오래 익혀온 덕분이었다. 처음엔 책 위에 조그만 글씨로 토를 달아가면 될 거라 여겼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뾰뾰한 데다, 토를 다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끝마치지 못할 것 같았다. 결국 원고지에 다시 옮겨 적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남독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사진: 남독 전 집에서 먼저 뜻을 풀고 닳선 한자에는 음과 훈을 달아 문장을 정리한다.

봉사자 공고를 보고 찾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사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일반 도서를 낭독해 시각장애이용 도서로
녹음하는 봉사자를 찾는 공고였다. 공고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그는 1997년 3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았다. 많은 책은 침술과 역학, 주역 같은
전문서적이었다. 한 구절을 읽기 전 먼저
뜻을 풀고, 낯선 한자를 찾아 음과 훈을
달아 문장을 정리한 뒤에야 마이크를 켰다.
예독과 검수까지 거쳐야 한 페이지가 겨우
끝났다. 그래서 그의 녹음은 한 권에 몇 달,
길게는 일 년 가까이 걸리기도 했다.

전문서적 낭독, 생업을 돕는 소리책

시각장애인에게 이 소리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었다. 특히 안마나 침술처럼 생업과 맞닿은
분야에서는 전문서적이 곧 업무 지침서가 된다.
하지만 관련 책을 이해해 가며 낭독해줄 사람은
늘 부족했다. 그래서 김용춘 씨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다. 복지관으로 책을
우편으로 보내 낭독을 부탁하는 경우가 이어졌고,
그는 그 책들을 다시 뜻부터 풀어가며 읽어냈다.
소리는 그렇게 지식이 되어 달고 생계로
이어졌다.



사진: 김용춘 씨가 낭독하는 전문 서적은 시각장애인들의
지식과 생계에 보탬이 된다.



1994년

수지침을 배우며 봉사 시작
봉사단체 오지회 결성,
요양원에서 수지침 봉사 시작

1996년

조카의 부탁으로 한방 서적에 한자
토를 달아주며 원고를 옮겨 적던 중
녹음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자원

1997년 3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녹음 봉사
시작, 침술·역학·주역 등 전문서적
낭독·녹음 활동 본격화

격려로 다가온 우정선행상

제19회 우정선행상 본상은 그가 걸어온 시간을 확인해 준 상이었다. 그는 좋아서 해온 일이었는데, 과분한 상을 받았다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상금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의 녹음 장비를 보강하는 데 쓰였다. 그렇게 마련된 장비는 그가 오랜 시간 붙드는 책들을 더 또렷하게 남길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그에게 우정선행상 수상은 더 오래, 더 성실히 봉사하라는 격려처럼 남았다.

제19회 우정선행상 시상식



사진: 제19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에서
손봉호 심사위원장과 김용춘 씨



오히려 고마운 마음뿐

여전히 김용춘 씨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는다. 집에서 복지관까지 꼬박 한 시간 거리지만 아침 일곱 시 반부터 집을 나서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가 읽는 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지금까지 누적 낭독 도서는 약 176권. 우연한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잘 듣고 있다'고 말해주는 이들을 만날 때면 그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



사진: 녹음 스튜디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용춘 씨



2019년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
누적 낭독 도서 약 164권

2020년~2021년

코로나19로 복지관 녹음실
운영 중단
비대면 방식으로 자료 정리·
한자 풀이 등 봉사 지속

2022년

복지관 녹음실 재개 및
녹음 봉사 활동 복귀

2026년 3월 현재

주 3회 녹음 봉사 지속
누적 낭독 도서 약 176권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기를

함께 성장하는 청년 봉사단 드림잇(Dream it)



사진: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 앞에서 배달 도시락 가방을 든 드림잇 봉사자들.

수백 명의 청년들이 팀을 이뤄 곳곳에서 봉사를 펼치는 모습을 그려본다. 성탄절에는 몰래 나타나는 산타가 되고, 재난 현장에서는 잿더미 속에서 발가락까지 까매지도록 복구에 힘쓴다.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는 매주 다른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봉사로 만들어가는 ‘드림잇’의 무대는 감동과 열정으로 꽉 차 있다.



사진: 드림잇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음식을 만들고 있다.

한 번의 봉사, 두 배의 기쁨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가 시끌벅적하다. 월 2회 진행되는 놀이봉사와 요리봉사를 위해 드림잇 봉사자들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오늘 모인 인원은 총 17명. 그중 3명은 1층에서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벌였다. 나머지 14명의 봉사자는 지하 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도시락과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오늘 도시락 메뉴는 계란 국과 애호박볶음, 소시지 채소볶음, 간장 찜닭이다.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 달달한 맛탕까지! 드림잇 봉사자들은 요리봉사를 올 때 항상 직접 장을 봐서 재료를 준비한다. 그래서인지 요리 실력은 기본, 정성과 사랑까지 한 스푼 엮은 맛을 보장한다.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와는 2022년도에 인연을 맺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이들 놀이봉사로 시작했다가 센터 측 제안으로 어르신 도시락 봉사까지 같이 하고 있다.

사진: 성탄절이면 산타가 되어 아이들에게 찾아가기도 한다.



요리 봉사자들은 20개의 도시락에 음식을 나누어 담고, 어르신들의 집으로 배달하기 위해 센터를 나선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한파의 매서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늦은 오후. 따뜻한 밥과 국이 식기 전에 걸음을 서두른다.

다양한 봉사를 통한 우리들의 성장

드림잇은 2019년 6월 창설된 청년 봉사단체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목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정회원은 80여 명, 일반회원은 690여 명에 이른다. 오픈채팅방에 봉사 일정을 올려 참여가 가능한 봉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회원이 많다 보니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매월 30~40회의 봉사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연탄·김장·플로깅(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수어·요리봉사, 주거환경 개선과 유기견 보호 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 활



사진: (위) 무료 급식 봉사가 끝난 뒤 드림잇 봉사자들이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있다.
(아래) 유기견 보호시설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드림잇 봉사자들이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놀이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한 현대판 흥부와 놀부 공연의 한 장면

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MOU를 맺은 단체나 기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청년들의 감각과 시선이 담긴 봉사를 기획하기도 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플로깅,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스터디 스터디 등을 추진 중이다.

각자의 본업을 하면서 주말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모이는 봉사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었던 적이 많았다. 또 도움을 받는 이들의 사연이나 아픔을 속단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순간의 온기에 집중해 매 순간의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Q. 드림잇이 비영리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된다고 들었어요.

2026년 2월 7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단체로 전환됩니다. 최근 몇 년간 드림잇 운영진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왔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어떤 것인가요?

2023년도에 ‘(재)바보의나눔’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공모사업에 제출한 기획안이 선정되어 연극 봉사를 했습니다. 현대판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대본으로 발달장애 친구들과 1년 동안 무대를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연극에 도전하는 과정, 그리고 대학로 소극장을 대관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던 그 시간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Q. 드림잇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인가요?

드림잇의 슬로건이 ‘함께 성장’인데 그만큼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봉사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 사람이 성장하고 관계가 남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마다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시점은 다르지만, 작은 활동 하나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시선을 넓히고, 그 시선들이 모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

드림잇 봉사단 윤덕재 대표와의 미니 인터뷰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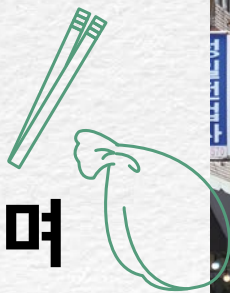
사진: 쓰레커 봉사자들이 빗물받이 주변에 그린 그림. 빗물받이 위쪽에 화가 난 고양이 그림이 있고, 아래쪽에는 '담배보다 꽃을 피우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S r e k k e r



도시는 멀리서 보면 정돈되어 보이지만,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봐도 버려진 쓰레기들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토요일 오전 열 시, 이 익숙한 풍경 속으로 봉투와 집게를 든 청년들이 들어선다. 2020년 11월에 시작된 그들의 실천은 말보다 먼저 행동이 쌓여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도시의 틈새를 누비며 변화의 발걸음을 뚫다



청년 플로깅 크루
'쓰레커(Srekker)'



사진: 골목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쓰레커 회원들

쓰레기를 줍는 트레커들

시작은 우연한 목격에서 비롯되었다. 중·고등학교 동문인 심성훈(34) 씨와 정성균(34) 씨는 산행 중, 산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말없이 주워 담는 한 시민의 뒷모습을 보았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지나치지 않고 발밑을 살피는 그 태도가 인상 깊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많은 말보다, 조용히 몸

을 움직이는 선택 하나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다.

두 사람은 환경 보호가 거창한 구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걷고, 줍고, 돌아오는 일. 그렇게 선택한 활동이 플로깅이었다. 이름은 쓰레기를 줍는 '트레커(Trekker)'라는 뜻을 담아 '쓰레커'라고 정했다. 활동의 성격을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었다.

“환경 문제는 똑똑한 한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다수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일 때 비로소 실마리가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였는데, 청년들의 고립 문제도 심각했죠. 함께 플로깅을 하며 밖으로 나와 걷고, 몸을 움직이는 경험 자체가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진: 빗물받이 주변에 그림을 그리고 메시지를 적어 쓰레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전한다.

길 위에서 길 아래까지 이어지는 시선

시작은 소박했다. 두세 명이 모여 도심에서 가까운 산을 한 시간 남짓 걷는 것이 전부였다. 활동을 기록 삼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다 보니, 같은 리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했다. 그렇게 이어진 발걸음은 어느새 규모를 갖췄다. 한 번의 활동에 열 다섯에서 스무 명 안팎이 함께 걷고, 공식 오픈채팅방에는 약 300명이 모여 있다. 규모는 커졌지만, 걷는 방식이나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0년 11월부터 이어져 온 쓰레커의 운영 방식은 늘 한결같다. 격주 토요일 오전 열 시, 활동 장소는 한강 변부터 구도심의 골목까지 특정한 장소를 정해 적게는 10명 많게는 20~30명이 트레킹과 플로깅 활동을 한다. 시작 전 간단한 안내가 있고, 이후에는 각자 흩어져 걷는다.

쓰레커는 길 위뿐 아니라 ‘길 아래’에도 시선을 둔다. 장마철에 진행되는 빗물받이 정비가 대표적이다. 덮개를 열어 안쪽에 쌓인 공초와 낙엽을 꺼내는 작업은 고되지만, 물길이 막히는 지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때는 수거량을 기록하며 활동의 성과를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숫자가 앞서면 활동이 금세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배웠다. 지금은 기록보다 리듬을 택한다. 걷고, 줍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우선

함께 걷는 경험을 각자의 동네에서도 이어가고 싶다는 제안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별도 모임을 시도한 적도 있다. 지금은 격주 토요일 정기 활동을 중심에 두고,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실천을 더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생된 형태가 ‘꼬마 쓰레커’다. 기존 참여자들이 가족 단위로 활동을 확장하며, 아이들과 함께 걷는 플로깅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이들은 장갑을 끼고 집계를 들고 어른들의 걸음을 따른다. 쓰레기를 줍는 일이 특별한 봉사가 아니라, 일상 속 행동임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다. 쓰레커가 지키려 한 ‘지속 가능한 방식’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아침에 부담 없이 나와서 걷고, 줍고,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흐름. 그게 오래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도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모여 걷고, 줍고,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진다. 이 반복이 쌓이며 도시는 조금씩 숨을 틔운다. ☺

사진: 눈에 덮인 쓰레기를 찾아 수거하고 있다.



사진: 쓰레커의 손길이 지나간 거리는 순식간에 깨끗하게 변화한다(전후)



사진: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를 열고 내부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한다.

“우리가 바라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아침에 부담 없이 나와서 걷고, 즐기고,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흐름. 그게 오래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진: 플로깅 활동 후, 수거한 쓰레기를 함께 들고 하루의 결과를 남기고 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살맛나는 세상》 책자를 찍은 사진,
또는 책자를 꽂아두고 싶은 공간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세요.

* 직접 촬영하신 사진만 보내주세요. 타인의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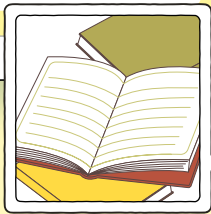
장효선



사진: 간이책장에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고, 그 사이에 《살맛나는 세상》 책자가 보인다.

아동치료센터 학부모 대기실에 간이 책장이 있습니다. 대기하면서 읽을 책과 잡지들이 있는데, 더 많은 분이 읽으시라고 《살맛나는 세상》을 꽂아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요긴히 읽으시겠지요!

+



김동현



사진: 벽면을 따라 책장이 놓인 도서관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다.

퇴근길에 들르는 동네 도서관이 있는데, 《살맛나는 세상》도 함께 놓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면, 그 하루가 조금은 덜 팍팍해지지 않을까요.

+



카카오톡 채널 접속 후 '채팅하기(●)'를 선택하여 참여(채팅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이메일 goodnews@kolon.com

참여 기한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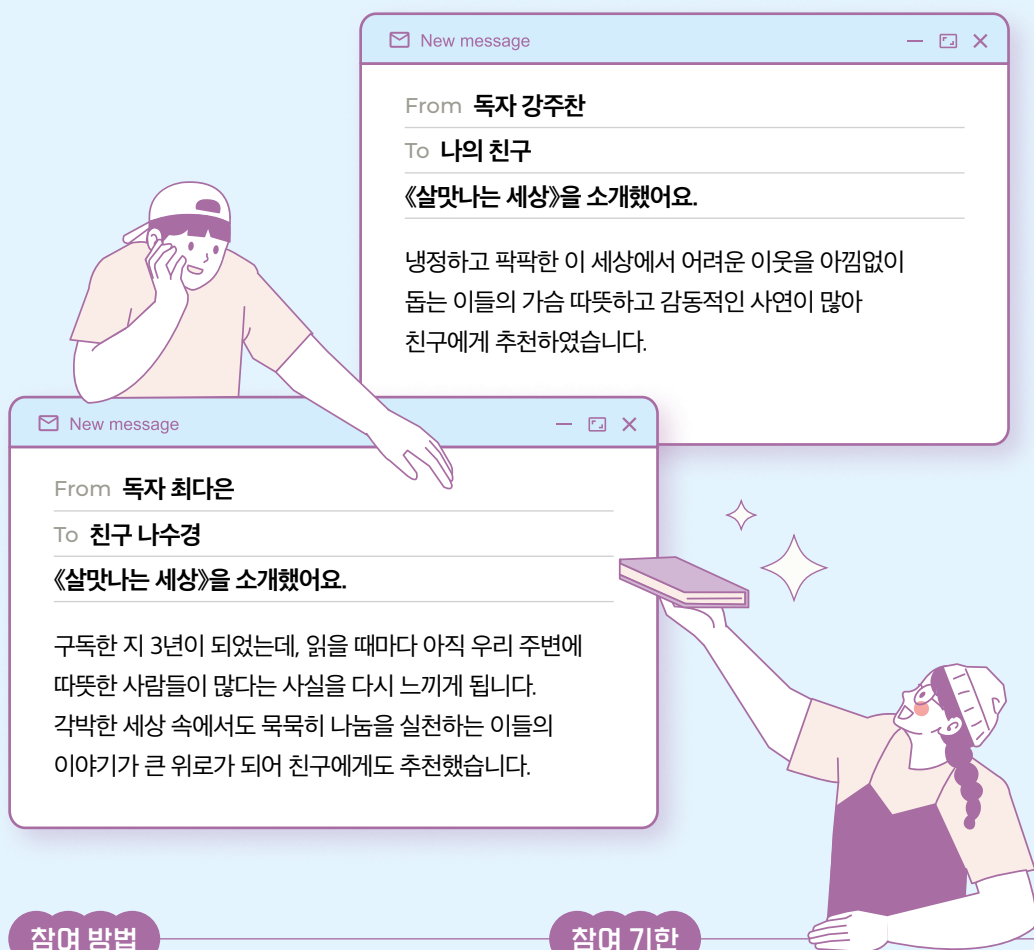
* 선정되신 분들의 사진 및 메시지는 책자에 소개되며,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살맛나는 세상》
구독 신청하기

숨겨진 선행·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려 세상을 보다
살맛 나게 만들기 위해 탄생한 책자, 《살맛나는 세상》! 더 많은 분들에게
그 따뜻한 의미를 전하고자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주변에 소개해 주시거나, 소개를 받으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살맛나는 세상》을 소개하셨거나
소개받으신 후 좌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참여

참여 기한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 선정되신 분들의 사연은 책자에 소개되며, 두 분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지켜온 자리

2만 3천여 시간

교육봉사 이어온 김윤주 씨

현수막 한 장이 바꾼 (일상)의 궤적

2007년의 어느 날. 학원 강사로 일하던 그는 시흥시 신천동 길가에 걸린 '자원봉사자 모집' 현수막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그 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온 문구였다. 당시 시흥 구도심은 판자촌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마을이었다. 조손가정,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가난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보호자의 질병과 무력감 속에서 방치된 아이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를 맞이했다.

“막상 들어가 보니 공부가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상태를 보니까 ‘아, 이걸 돌봄이 비어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손 잡아주고, 손톱 깎아주고, 바닥 청소하는 것부터 했어요. 이런 오래 해야 할 일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 맡은 일은 위기 청소년 상담이었다. 같은 시기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학습 지도를 시작했다. 센터 밖에서도 그는 아이들의 삶을 따라갔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직접 담임교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고, 운동회에는 부모 대신 참석해 2인 3각 경기에 함께 뛰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아이는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다줬다. 그에게 봉사는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는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나눔’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일지 모르지만, 김윤주(54) 씨에게는 삶의 일부였다. 2만 3천여 시간 동안의 봉사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으려 했던 진심의 기록이다. 그는 그렇게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삶을 온전한 의미들로 가득 채워왔다.

사진: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김윤주 씨



봉사 시간

총 23,400시간

(2025년 1월 기준)



봉사를 위해 취득한 자격증

초등수학·한자·독서논술 지도사,
심리상담사, 생태지도사 등

60여 개



봉사 내용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대상 학습지도,
정서 지원, 돌봄 등



사진: 김윤주 씨가 책상에 앉아
동화책과 노트를 펼쳐 두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그림책을 활용해 아이들과 읽고, 묻고, 생각을 나누는 수업을 진행한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공부)



사진: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서 색칠과 쓰기 활동을 돕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칠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봉사 초창기, 형편이 어려운 한 아이에게 옷을 사주었다가 그 아이가 끝내 입지 않는 일을 겪었다. 선의였지만 아이에게는 동정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마음으로만 돕지 말고, 제대로 알고 돕자고 결심했다.

원래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로 아동학 학사 과정을 밟았다. 상담 공부도 이어갔다.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며 말의 무게를 배웠다. 좋은 의도보다 적절한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배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자지도사, 초등수학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생태지도사, 학습코칭, 일본어능력시험 등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직접 배우고 자격을 갖췄다. 취득한 자격증은 60개를 넘겼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아영(兒永)장학재단'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아이를 오래 응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그는 말한다.



사진: 조손가정 어린이 운동회에 보조자로
참여해 2인 3각 경기를 함께한 김윤주 씨

아이들을 위한 진심을 담은 (응원)

이제 그에게 봉사란 '일상'에 가깝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을 찾는다.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과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청소년 학습 지도를 맡고, 청소년 상담을 병행한다.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프로그램과 캠페인 활동을 돕고,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 대상 활동과 도서관 업무를 지원한다. 보수는 없지만 역할은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봉사는 그에게 갑작스러운 선택이 아니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남모르게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던 아버지, 소풍날이면 친구들 뒤통까지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 '적선지가 필 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을 되새기며 살라고 하던 할머니. 그는 어릴 적부터 먼저 내어주는 가족들을 보며 자랐다. 그렇게 보고 배운 태도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었다.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비용을 감당하는 일은 지금도 대부분 사비로 이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남편은 "옳다고 생각하면 하라"며 힘을 보탠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아영(兒永)장학재단'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아이들을 오래 응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그는 말한다.

그에게 봉사란 어쩌면 '책임'의 다른 말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스스로를 채워온 시간들. 오늘도 그는 책을 편다. 아이들의 내일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



사진: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 등 기초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 지난해 봉사시간 2만 시간 달성으로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서 도자봉이 인증을 받았다.

열정으로 여문 지식

나눔으로 피어나다



사진: 국립경주박물관 전시실에서 두 손을
모은채 서 있는 이용호 씨



사진: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천년고도 경주의 골목길부터 남산의 깊은 골짜기까지 이용호(80) 씨가 걷는 길은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 탐방로가 된다. 그가 돌 하나 풀 한 포기에서 서린 이야기를 전할 때면 박제된 유물은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난다. 그의 해설은 감탄이 아니라 근거에서 시작되고, 즉흥이 아니라 준비된 말로 이어진다. 오래 공부한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설명이다. 배움과 나눔이 나란히 서 있는 그의 시간은 그렇게 축적되어 왔다.

경주에서 문화유산 해설 봉사하는 이용호 씨



사진: 야간 문화유산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족 단위 참여자들과 월정교 일대를 함께 걷고 있다.

배움에서 출발한 봉사

이용호 씨의 봉사는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보다, 먼저 제대로 알고 싶다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무엇이든 대중 넘기지 않는 성향은 그의 봉사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봉사를 시작할 때조차, 그는 먼저 배움의 자리에 자신을 세웠다.

퇴직을 앞두었던 2003년, 그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봉사 현장에도 발을 들였다. 2005년부터는 경주 성동노인정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그때는 봉사가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서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입장이라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몸으로 돕는 봉사도 의미는 있지만, ‘이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일까’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질문은 그를 멈춰 세웠다. 사람을 돕는 일에는 여러 방식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이 이끈 또 다른 배움의 길

경주 토박이인 그에게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다. 경주에 방문한 지인이 유적지 안내를 부탁했을 때였다. 막상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혔다. 오래 살아온 고향이었지만, 정작 제대로 알고 전할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내 고향인데, 손님들한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걸 가지고는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문화유산 해설 공부를 시작했다. 2006년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을 받으며 현장에 들어섰고, 이후 경주박물관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후배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했다. 결국 그는 예순을 넘긴 나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알게 된 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예요.”



사진: 제17회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경주시 문화상을 수상한 이용호 씨 (가운데)

사진: 박물관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용호 씨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2025 APEC 한미·한중 정상회담장'에서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하고 있다.

사진: 후배 문화유산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오랜 봉사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표창장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등 다양한 상을 받았다.



이에 대학교에 편입했고, 대학원에 진학해 2020년 불교미술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경주 남산과 주요 사적지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해설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고, 국립경주박물관 도슨트 활동도 병행해왔다. 그렇게 문화유산 해설과 박물관 도슨트 활동, 답사 지도와 후배 양성까지 이어온 봉사 시간은 어느덧 15,000시간을 넘어섰다.

현장에서 완성되는 나눔

이용호 씨의 해설이 살아 있다는 평을 받는 이유는, 현장에서 축적된 시간 때문이다. 학술대회와 발굴 현장을 따라다니며 이론과 실재를 연결했고, 2018년 덕동호 수물 지역 답사 중 신라 고분 유적 백여기를 발견하는 데에도 함께했다.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경험들이 그의 해설에 깊이를 더했다.

그가 이토록 배움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후배들에게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넘겨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해설사 교육과 답사를 통해 후배들을 길러왔고, 봉사단을 조직해 기반을 닦은 뒤에는 자리를 넘겨주는 일을 반복해 왔다.

“나는 선배들한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알게 된 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배움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의 해설은 늘 준비돼 있고, 그의 말은 늘 근거에서 출발한다. 배움과 나눔이 나란히 서 있는 그의 시간은 지금도 경주의 길 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

발달장애를 안고 자란 아들이 이제는
출근을 하고, 농담을 건넨다.
그 변화 뒤에는 중국집 주방과 병원을
오가며 하루를 쪼개 써야 했던 시간이
있었다. 그 틈에서 그는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을 만났다. 봉사는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 시간은
아들의 성장과 변화로 되돌아왔다.
지보현(69) 씨에게 봉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이기보다,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어온 삶의
방식이었다.

사진: 지보현 씨가 무료 급식소 주방에서
파를 썰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나의 작은 날갯짓이 봉사의 물결을 이루는 나비효과 되길

발달장애 아들 덕분에
봉사의 길에 들어선 지보현 씨

봉 사 의 길

아들이 일러준 봉사의 길

어느 날엔가는 아들 대성 씨가 “아빠는 하라는 보험은 안 하고, 맨날 봉사만 다닌다”라며 타박 아닌 타박을 한다. 김포우체국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보현 씨는 아들의 그런 핀잔이 싫지 않았다. 돌이 막 지났을 무렵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참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그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들 덕분에 봉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며 감사해한다.

“중국집 주방일이 참 고된데, 일을 마치면 매일 같이 아들의 진료를 위해 서울과 여러 지역을 다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호전되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에서였죠. 어려운 상황의 이웃들을 많이 만나면서 욕심과 걱정을 비우고 주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짜장면 나눔을 위해 직접 조리하고 있는 지보현 씨



사진: 무료 급식 준비를 위해 재료를 다듬고 있는 지보현 씨

지보현 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한 달에 열 번 고양시 애덕의 집, 용인시 성가원, 하남시 작은프란치스코의집 등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를 했다. 경북 경산, 전남 목포 등지에서도 이어졌다.

밥 한 끼 나누는 귀한 순간

매주 화, 목요일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한 지도 어느덧 17년이 넘어간다. 식사 재료 준비를 위해 지보현 씨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중식 칼과 위생모자, 앞치마. 그는 언제나 차 트렁크에 음식 봉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손수 챙겨 다닌다. 봉사 요청이 들어오면 준비물을 넣어둔 가방만 챙겨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식이 시작되면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을 돕거나 식사를 대신 받아 가져다드린다.

“초창기에는 400~500인분의 식사에 필요한 재료를 다듬고 세척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칼질만 하면 되니까 수월한 편입



사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누적 50회 이상 헌혈자에게 수여되는 헌혈유공패 금장을 받았다.

“봉사하면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봉사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작은 날갯짓이 나비효과가 되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게 차리는 밥 봉사가 주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남 목포에서 만난 한 아이를 잊을 수가 없다. 짜장면을 세 번이나 가져다 먹길래 양이 적었나 의아했는데, 다 먹은 그 아이가 “아저씨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척을 해 보였다. ‘그깟 짜장면 한 그릇이 뭐라고’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범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귀한 순간이 모여 32년 동안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봉사를 통해 받은 ‘희망’과 ‘보람’이란 선물

중국집을 계속 운영하기가 버거워 결국 2005년 문을 닫고 김포우체국 보험설계사로 들어갔다.

그 덕에 더욱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가정의 사정까지 알게 되면서 봉사는 일상이 되었다. 매년 150만 원 이상 개인기부도 실천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94번의 헌혈을 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두말하지 않고 달려간 분주한 발걸음이 쌓여 2018 경기복지대상에서 ‘아름다운 얼굴 10인’에 선정됐고, 2018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봉사하면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사람들 모르게 묵묵히 봉사해야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SNS에 올리고 최대한 많이 알립니다. 봉사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작은 날갯짓이 나비효과가 되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니까요.”

31년 전, 지보현 씨의 중국집 단골손님이었던 이를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식당에서 만났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살퍼 가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는다. 봉사는 희망과 보람을 선물하며 지보현 씨와 이웃들을 연결해주는 끈이 되고 있다. ☺

사진: 지보현 씨는 현재까지 총 아흔네 번의 헌혈을 실천하며 꾸준한 생명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봉사로 진일보한 인생 2막

사진: 김은배 씨가 일산서구청 자원봉사 거점센터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 정년퇴직 후 봉사의 삶 살아가는 김은배 씨



사진: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려는 시민과 마주 앉아 상담을 하고 있다.

오랜 기간 기업에서 사내교육 담당으로 일해온 김은배(67) 씨는 퇴직 후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봉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봉사 입문을 위한 친절な 안내자

고양시 일산서구청 자원봉사 거점센터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다. 김은배 씨는 환한 얼굴로 인사한 후,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묻고 곧바로 상담을 진행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 곳곳에 거점센터를 마련해 두고 있다. 2021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거점 매니저로 선발된 김은배 씨는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 고양문화의집 등 3개 거점을 오전·오후로 나눠 오가며 자원봉사 상담과 안내, 신규 봉사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도에 정년퇴직 후 이듬해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이라 잘 몰랐던 부분들을 제 경험 위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봉사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은배 씨는 한 기업의 교육 담당 부서에서 32년간 근무 후 정년퇴직했다.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니, 앞으로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하나 고민이 시작됐다. 특별히 세워둔 계획도 없었던 데다 갑자기 생활 패턴까지 바뀌니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3개월 동안 입원을 두 번이나 하면서 호되게 병치레를 했다.



사진: 거점 매니저로서 신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화동 주민자치위원 모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것이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차곡차곡 넓힌 봉사의 범위

“봉사를 통해 그동안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것도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봉사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쏟은 시간과 노력이 온전히 저에게 돌아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은배 씨는 2019년도부터 국립암센터 검진 보조, 일산서부경찰서 시민경찰대 활동, 각종 체육대회와 지역 행사 현장 지원 자원봉사를 이어왔다. 그렇게 봉사의 즐거움을 한창 알아갈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기관의 자원봉사활동이 일제히 운영을 멈췄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그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도울 수 있는 봉사를 찾다가 2021년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 모니터링단에 지원했다.

“도시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미관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 사용이 많이 늘었는데 새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점검을 돕고 모니터링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거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건물 곳곳의 유리를 살펴보고 새가 부딪힌 흔적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사진: (위) 산림 환경정화 활동 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 김은배 씨(왼쪽에서 네 번째)
(아래) 야생조류 충돌 흔적을 확인하며 모니터링 봉사를 하고 있는 김은배 씨(오른쪽)

“봉사를 통해 그동안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것도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봉사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쏟은 시간과 노력이 온전히 저에게 돌아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진: 김은배 씨는 매주 월요일에 국립암센터에서 환자 안내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월 4회 제출했다. 1년 여의 모니터링 봉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수봉사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자원봉사자 중 1년 동안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김은배 씨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봉사를 시작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받은 상은 그의 성실함을 알아주는 든든한 격려였다.

사진: 야간 안전보안관으로 지역 순찰에 나선 김은배 씨(맨 오른쪽)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김은배 씨는 최근 12주 간의 시민대학 교육과정을 수료 후 북한산국립공원 자원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익숙한 봉사에 안주하기보다 다양한 봉사영역을 찾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몸에 밴 듯했다.

월요일은 국립암센터,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화동 안전보안관, 그리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거점 매니저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고양시장상, 2024년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봉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말하는 김은배 씨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봉사할 수 있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

위기의 순간을 구한 선한 사람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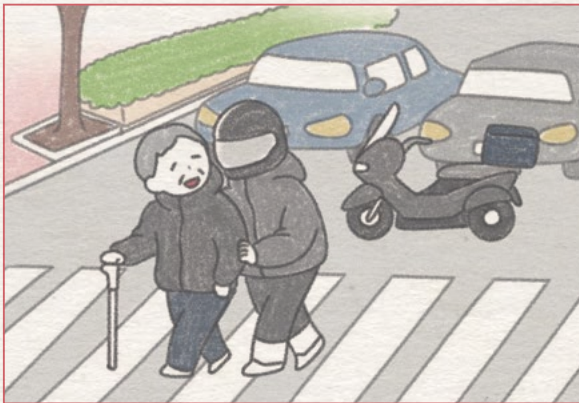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시민들

2024년 4월, 서울의 한 거리에서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다급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말을 걸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불러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찰을 통해 딸과 직접 통화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치지 않고 손 내밀며 행동에 나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삽화: 전화를 받고 당황한 여성에게 시민들이 다가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말을 건네고 있고, 한쪽에서는 112에 신고하고 있다.

#2



삽화: 횡단보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배달기사가 부축하며 함께 길을 건너고 있다.

횡단보도에 발이 묶인 어르신을 도운 배달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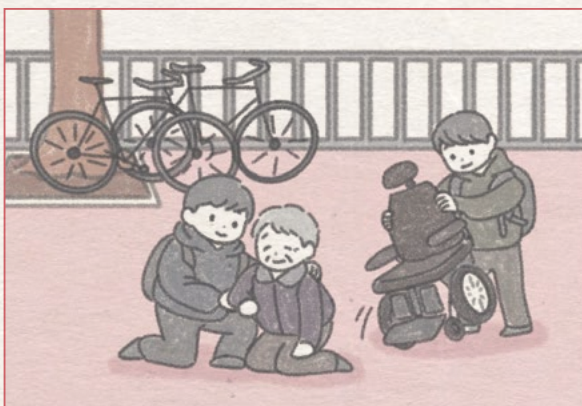
2023년 2월, 대구 달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배달기사가 곧바로 달려 나와 걸을 지켰고, 오토바이로 차량을 잠시 막아 양해를 구하며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어르신이 안전하게 길을 건넌 뒤 배달기사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정과 관련한 연관어 검색량이 지난해에 비해 150% 이상 상승했고, ‘좋은 사람’의 행동을 삽화로 모아낸 책이나 팝업스토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살맛나는 세상》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좋은 행동을 도감으로 보여드립니다.

#3

전동 휠체어 사고를 돕고 곁을 지킨 중학생들

2024년 3월, 경기 이천시 안흥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를 본 중학생 두 명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내려두고 곧바로 달려가 전도된 휠체어를 바로 세우고 여성을 안전하게 일으켜 앉혔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여성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에 머물며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삽화: 인도에서 전동 휠체어가 넘어져 있고, 중학생 두 명이 휠체어를 바로 세우며 여성을 부축하고 있다.

#4



삽화: 화재가 발생한 원룸 건물에서 택배기사가 119에 신고하고,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주민 대피를 도운 택배기사

2024년 4월, 강원 원주시 우산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물건을 배송하던 한 택배기사가 화재 경보음을 듣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불이 난 세대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른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며 대피를 도왔고, 주민들은 인명 피해 없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

EXHIBITION

추억, 시간이 남긴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추억은 기억을 넘어 사물과 공간에 남는다. 떠올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 삶이 지나온 시간은 흔적으로 쌓여 있다. 이번에 만나는 세 전시는 각기 다른 대상과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기억을 넘어 시간이 어떻게 삶의 흔적으로 남아 왔는지를 보여준다. 과거를 되돌리기보다, 사물과 장면에 남은 시간을 따라가며 지금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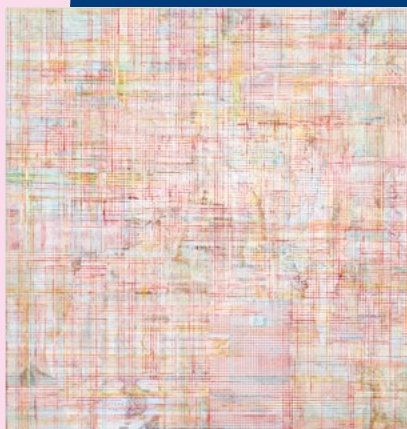
사진: 나무 바닥 위에 빈티지 카메라가 놓여 있다.

맨디 엘-사예: 테레사, 이후



전시기간 2026.03.19.~06.21.

전시장소 스페이스K 서울



스페이스K 서울은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맨디 엘-사예(Mandy El-Sayegh, b.1985)의 개인전 〈테레사, 이후(For Theresa)〉를 개최한다. 말레이시아 태생으로 팔레스타인·중국계 혈통을 지닌 작가는 서구 사회에서 성장하며 체득한 ‘이방인의 시선’을 바탕으로 자료수집과 편집 방식을 동원한 독창적인 아카이브적 설치 작업을 전개해 왔다. 작가는 흩어진 이미지와 파편화된 텍스트를 수집하고 재조합하여 견고해 보이던 기존 질서를 해체함으로써 대안적 서사를 제안한다. 작가의 리서치 기반 작업의 핵심은,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미학으로 번역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에서 박물관·고서점·책방시장을 오가며 직접 수집한 고지도와 서예, 지폐와 같은 인쇄물들을 광범위하게 전시에 끌어들인다. 수집과 분류라는 아카이브의 기술을 통해 이와 같은 물질적 흔적들이 권력의 축적과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 왔는지 그 정치적 함의를 추적한다.

전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제목 〈테레사, 이후〉는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 1951-82)을 소환한다. 차학경의 저술 《딕테》가 탐구했던 파편화된 주체, 기억의 전치, 언어의 총위를 자신의 작업 세계와 연결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재구성하는 총체적인 무대를 구축한다.



보존과학,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



전시기간 2025.10.28.~2026.6.30.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1층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보존과학,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는 유물이 어떻게 보존되고 복원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전시장에서는 깨지고 닳은 유물의 표면과 복원 전·후의 모습, 보존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와 기술을 차례로 만나게 된다. 이쑤시개 하나로 진행된 초기 보존 작업부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신 복원 방식까지 보존과학의 흐름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펼쳐진다. 전시는 유물을 새것처럼 되돌리는 것보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지를 고민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닳음과 손상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유물이 지나온 시간을 증명하는 일부로 다뤄진다. 보존과학은 과거를 되돌리는 기술이 아니라, 남아 있는 시간을 이해하고 현재로 이어가는 매개임을 이 전시는 차분히 드러낸다.





출산, 모두의 잔치



전시기간 2025.12.03.~2026.05.10.

전시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1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 <출산, 모두의 잔치>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시간으로 바라본다. 전시장에는 산실이라는 공간,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선택의 과정, 아이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 온 풍습과 기록들이 놓여 있다. 출산은 누구에게나 삶의 출발점이지만, 정작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전시는 기억되지 않는 시간을 대신해, 그 시간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을 보여준다.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풍경은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언제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출산은 본인의 기억으로 남지 않아도,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 전시는 나지막이 전한다. ㉠



코오롱사회봉사단에서는 2012년부터 새 학기를 앞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학용품과 먹을거리 등이 담긴 ‘드림팩’을 직접 포장해 전달하고 있다. 올해 드림팩 제작 행사는 코오롱글로벌 임직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KOLON GLOBAL과 함께하는 Dream Pack 기부천사 캠페인

코오롱사회봉사단



사진: 코오롱사회봉사단 서창희 총단장(가운데)과 코오롱글로벌 김영범 대표이사(오른쪽에서 세 번째) (좌코오롱 김현기 부사장(왼쪽에서 세 번째) 및 코오롱글로벌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꿈꾸는 아이들을 응원하다

2026 코오롱 드림팩(Dream Pack) 기부천사 캠페인



‘드림팩 기부천사 캠페인’은 코오롱사회봉사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헬로 드림(Hello Dream)*’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30곳에 전달할 드림팩을 제작해 전달하는 활동으로, 제작 기금 마련부터 포장, 전달까지 전 과정이 임직원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코오롱글로벌 임직원들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지난해 12월, 레저 및 호텔 전문기업 엠오디(MOD) 및 자산관리 전문기업 코오롱엘에스아이(LSI)와 합병을 완료한 코오롱글로벌은 합병 후 첫 공식 행보를



사진: 드림팩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사회공헌으로 시작하며 새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코오롱사회봉사단 서창희 총단장과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사를 비롯한 신입사원 및 각 사업부서의 임직원 등 총 40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884개의 드림팩이 완성되었다. 올해의 드림팩에는 무선 이어폰, 학용품, 놀이 용품, 간식 등 아이들의 선호를 사전에 파악해 선택된 물품들을 비롯하여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되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 엽서도 동봉되었다. 코오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꿈꾸는 아이들의 빛나는 성장을 응원할 것이다.

* 헬로 드림: 코오롱 임직원들의 재능기부와 노력봉사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의 대표 프로그램



사진: 드림팩을 전달받은 아이들이 전해온 감사 편지



사진: 완성된 드림팩을 트럭에 상차하고 있는 코오롱글로벌 임직원들



열 번 피어난 무지개, 아름다운 동행의 마무리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해단식



사진: 코오롱사회봉사단 서창희 총단장(가운데)이 10기 청소년 멘티, 대학생 멘토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2015년부터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해단식과 함께 마무리된 그 열 번째 여정을 소개한다.



사진: 10기 활동 리뷰를 전하고 있는 멘티와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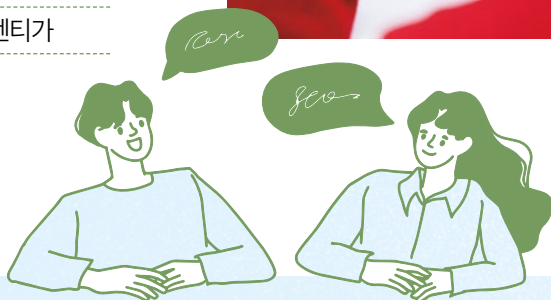


지난 1월 15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해단식이 진행되었다.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은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코오롱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과 동일한 배경의 대학(원)생을 1:1 혹은 다대일로 매칭, 학습 및 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진행된 10기 활동을 수료한 청소년 멘티는 30명, 대학생 멘토는 18명으로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학교 주요 과목을 학습한 것은 물론, 매월 한 차례씩은 유적지 및 전시관 탐방, 캠퍼스 투어, 스포츠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을 함께했으며, 멘토들에게는 코오롱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을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해단식에서는 10기 활동 리뷰,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게 감사와 행운의 메시지를 담은 캡슐 선물, 수료증 수여 등을 진행했으며, 코오롱사회봉사단 서창희 총단장은 수료증 전달과 함께 모든 멘티와 멘토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격려했고, 앞으로도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 멘토에게 전할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는 멘티





독자엽서

Thank you

2

양희라 씨의 소중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바랍니다

양희라 씨의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4년간 청소년과 어르신을 가르치며 배움의 꽃을 피어온 그의 헌신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힘을 얻는다는 말씀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아동이 내려앉은 골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교실의 모습은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주네요. 앞으로도 양희라 씨의 소중한 가르침이 많은 만학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rom. 장경식 님(경기 오산시 세마문학로)



Ch 살맛나는 세상 +

‘살맛나는 세상’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독자엽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Thank you

1

‘2025 꿈을 향한 Wish 트레킹’을 통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이번 ‘2025 꿈을 향한 Wish 트레킹’ 기사를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8억 3천만 보를 달성했다는 대목에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걷기가 자작나무 식재로 이어지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임직원분들의 유쾌한 ‘선한 경쟁’ 이야기를 보며 저도 오늘부터 기분 좋은 발걸음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From. 고유미 님(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Thank you

3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이
온기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이 온통 AI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빠르게, 또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 줌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썩썩 놀라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인 ‘공감’이 만드는 세상이 있기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AI 기술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천천히, 깊게 이해하고 온기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From. 신준철 님(강원 춘천시 지석로)

#SNS인증이벤트

2030 여러분의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어떤 사진이
좋을까?

내가 바라본 [살맛나는 세상] 혹은 내가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의 모습

*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작은 실천



3단계로 끝나는
초간단 이벤트!

01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거나 갤러리에서
찾아본다

02

내 SNS 계정에 업로드한다
필수 해시태그: #살맛나는세상
#코오롱#오운문화재단

03

QR코드를 찍어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5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기간 2026년 3월 5일~4월 10일 당첨자 발표 개별 연락

오운문화재단

